

# 早生統一벼 기술지도로 多收穫 거둬

## 1次年度에는 米麥增産에 拍車

### 고등소채재배 韓牛肥肉 양봉도 개발

慶南 晉陽郡 奈洞面 新栗里 栗谷부락 金正敎교수 결연지도로



栗谷부락 技術結緣者  
金正敎 教授

〈早生統一벼 시범단지 기술지도 장면〉

#### ◇ 주곡농업형의 영세마을

경남진양군 내동면 신율리 울곡부락은 진주시 남쪽 약 5km떨어진 울창한 산림으로 둘러싸인 산곡간마을.

미백위주의 주곡농업형으로 우리나라농업의 전통성을 갖고 있으나 45가구에 경지면적이 호당평균 0.81ha으로 영세성을 면치못하고있다.

75년 7월에 마을의 숙원이던 전화사업이 이루어 졌지만 새로운 영농기술의 도입이나 새 소득원의 개발, 생활의 과학화에 대한 인식과 의욕

은 다른마을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상태였다.

호주나 영농담당자의 학력은 대체로 무학(56명)이거나 국졸(57명)경도로써 매우 낮은편이며 농경작업에 쓰고 있는 농기구도 대체로 저능률적인 수동식이였다.

이마을은 밀양군 조생통일벼 시범단지로서 지정 되었을때부터 본인과 연관성을 갖고 있었으나 경작 기술결연을 맺고 제반 상황을 점검해 본결과 많은 문제점과 개선되어야할 사항들이 노출 되었다.

## ◇ 기술지도

소득의 주 원인 미곡증수부터 기술지도착수에 앞서 이마을의 입지 자연조건에 알맞은 소득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았다.

첫째는 현소득의 주원천인 미백의 증수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조생통일벼에 대한 집단시험단지로 지정된 마을이나 아직도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대나 소득의 배가에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이 마을의 입지조건을 감안한 소득원의 개발.

새로운 개발분야로는

- ① 비닐하우스에 의한 고등소채재배
- ② 한우비육(현재호당 1~2두 사육)
- ③ 양봉(산지에 자생한 아까시아자원 이용) 등으로 잡았다.

이같은 지도계획중 우선 1차년도 75년도에는 조생통일벼 시험단지의 성공적인 수행과 함께 미곡증산기술지도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 ◇ 조생통일벼 증수에 역점

이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생통일벼에 대한 특성의 인식이 중요했다.

이품종의 특징적인 사항들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장·단점 및 재배요령에 대한 기술지도를 썼다.

또 조기보은 육묘법의 사전지도로 보은조절육묘대의 육묘법을 마을사람들은 알게되었고 증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시비법의 합리적인 지

도로 종래의 생육전반기에서 파생되는 시비결함을 개선했다.

합리적인 물관리법의 지도는 대부분 배수불량의 일모작답에 벼뿌리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병충해의 방제지도는 극심했던 벼멸구피해를 경감시켜 병충해방제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 ◇ 다수확 시상대상으로 받들음

이같은 종합적인 기술지도결과 일반 벼는 평년작을 하회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본 조생통일벼 시험단지는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어 0.1ha당 700kg정도의 높은 수확량을 올림으로써 도나 군의 다수확 시상대상이 되었다. 이 실적은 벼농사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도입이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는가를 실감케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한마을 기술결연 초년도로써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과학기술의 도입이 영농의 과학화와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할때 무엇보다 보람찬 일이라고 느꼈다.

습관적 영농방식에서 벼농사의 과학화로 증산의 터전이 성숙되어 가고 있으며 소득원의 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각오가 새로이 충만되어 가고 있었다.

과학기술결연지도로서 이러한 의식구조의 변화나 사고방식의 개조는 이마을의 소득증대를 조속히 성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그 성공사례와 기술결연된 마을을 핵으로 그 인근마을에도 복지농촌실현의 새바람이 일것을 의심치 않고있다.

# 경남 새마을 技術奉仕團 案內

600 부산시 등구 초량동 부산건설회관

토목학회 경남지부내 전화 42-8757

단장 박 기 택